윤여수의 라스트 씬 | 영화 '컨택트'

외계인과 말이 통할까? 전 우주적 '바벨의 저주'

시공간을 초월하는 외계인의 언어 그 해석을 두고 갈등과 분쟁 휩싸여 공감과 이해의 고통은 인류의 운명

언어학자 루이스 뱅크스(에이미 아담스)는 외계인의 언어를 해독하려 애쓴다.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는, 비논리적이며 비선형의 외계 언어를 통해 그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운명적 삶에 관한 고민에 휩싸인다. 스포츠동아DB

구약성서 창세기에 따르면 당초 세상의 언어와 말은 한 가지였다.

거대한 방주에 의지해 대홍수 끝에 살아난 노아의 후손들은 번성했다. 대홍수의 고통을 겪고 난 뒤 이제 자연의 섭리와 신의 명령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욕망이었을까.

이들은 땅 위에 자신들의 도시를 건설하고, 높디높아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으려 했다. 이들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 탑을 건설하여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신은 분노했고 인간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았다. 언어는 서로 달라지고 말았다. 신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였던 말, '바벨의 저주'

바벨탑에 관한 창세기의 이야기대로 정말 세상의 언어가 각기 달라짐으로써 인간은 흩어지게 된 것일까. 그 각기 다른 언어를 서로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일까. 정말 영화 '컨택트'의 주인공인 언어학자 루이스 뱅크스의 말대로 "문명의 초석이자 사람을 묶어주는 끈"이기도 하지만, "모든 분쟁의 첫 무기"도 바로, 언어이고 말일까.

"문명의 초석은 과학"이라고 믿는 물리학자 이안 도넬리는 루이스 뱅크스에게 묻는다.

"외국어에 몰입하면 사고의 방식도 그 언어를 따라 바뀐다. 사용하는 언어가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사물을 보는 시각도 바꾼다. 혹시 당신도 그들의 언어로 꿈을 꾸고 있는 거요?"

이안 도넬리는 인류학자 에드워드 사피어와 언어학자 벤자민 리 워프의 '사피어·워프'의 가설을 인용했다. 언어학사에 중요한 이론을 이룬 이들은 "언어체계(문법)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단순한 복제 수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가 생각을 형상화한다는 것, 즉 각 개인의 정신활동, 자기가 받은 이상에 대한 분석, 주고받는 정신적인 것들의 종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침"(벤자민 리 워프, '위키백과' 인용)이라고 말했다.

'사피어·워프의 가설'은 언어가 곧 사고와 의식을 규정하며, 언어가 세상을 이해하는 시선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어떤 언어, 즉 어떻게 언어를 쓸 것이냐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언어학의 문외한으로서 실례이며 무지함일까.

난데없이 지구로 날아온 외계인들의 '표의'로 이뤄진 언어를 해독하기 위해 루이스 뱅크스와 이안 도넬리가 택한 길도 바로 그것이었다. 외계인의 언어는 원 형태의 비선형 구조를 지녔다. 그래서 인간이 쌓아온 논리적 사고체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루이스 뱅크스와 이안 도넬리와 외계인은 대신, 오래 전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고안해낸 상형문자처럼 서로의 행동을 따라하며 흉내 내는 것에서부터 이해의 과정을 시작한다.

●서로 다른 말…불순함을 거부하는 공감

하지만 이해는 또 다른 오해로 이어지고 만다. 간신히 해독해낸 외계인의 언어를 두고 세상은 또 다른 분쟁과 갈등에 휩싸인다. 말을 둘러싼, 그 의미와 뜻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중심에 둔 인간의 사고체계는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야 하는 것일까.

'바벨의 저주'처럼 세상의 갖은 갈등과 분쟁은 해결할 수 없을지 모를 만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언어와 말은 인간이 지닌 탁월한 능력 가운데 하나여서, 인간의 말과 언어로써 숱한 갈등과 분쟁은 해결되어 왔다. 그렇지 않다면 바벨의 저주는 아마도 일찌감치 세상을 공멸의 길로 몰아갔을 것이다.

이처럼 말이 말로써 소용될 수 있는 까닭은, 아마도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발화하는 순간 특정한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일 터이다. 그렇지 않으면 말은 단지 소리에 불과할 것이다.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은 그래서 말을 나누고 전하는 이들 사이에 오가는 특정한 뜻과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 된다.

'바벨의 저주'가 서로 말이 다른 세상에 각기 지닌 특정의 뜻과 의미를 공유할 수 없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지닌 능력으로써 그 속박에서 벗어나려 애써왔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 역시 성대와 입과 목소리로써 발화한 말의 특정한 뜻과 의미를 온전히 공유하고 이해하려 애쓰는 과정을 겪느냐 마느냐 하는 데 있으리라.

외계인의 언어는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는 원 형태로 이뤄져 있다. 그들의 이 같은 언어를 이해하면 인간의 시선에 고정된 논리와 흐름으로써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 짓는 것은 의미 없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처음을 알 수 없으니 끝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처음을 안다 해도 그 덕분에 알 수 있는 끝 역시 함부로 규정할 수 없음이다.

이는 다시 현재의 시선으로써만 미래를 다가오게 할 수 있음을 역설하는 건 아닐까. 바벨의 저주를 끊임없이 거부하려 서로에게 언어와 말로써 다가선 인간의 힘은 위대하다 믿는다. 위대함은 결코 독선적일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며, 서로가 서로의 언어가 지닌 뜻과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위대함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말이 말로써 통하고, 말을 말로써 들으며, 말로써 말을 이루게 하는 과정은 공감에서 출발한다고 봐야 한다. '바벨의 저주' 역시 공감의 능력으로써 단호히 거부되는 것이다. 하여 바벨은 '저주'가 아니라 이 같은 공감과 이해의 과정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또 다른 운명에 관한 교훈일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은, 그런 과정 없는 미래와 운명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려는 모든 행위는 불순하다. 말이 말로써 통하고, 말을 말로써 들으며, 말로써 말을 이루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 불순함에서 벗어나는 길이리라.

전문기자 tadada@donga.com

영화 '컨택트'는?

'컨택트'는 '인간과 외계인의 언어를 통한 소통'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펼쳐낸 SF영화다. 스포츠동아DB

인간-외계인 언어 소통 다룬 드니 빌뇌브 감독의 SF 영화

인간과 외계인의 언어를 통한 소통이라는 소재를 그린 SF영화. '그을린 사랑', '시카리오:암살자의 도시' 등 현실에 관한 비극적 운명의 시선으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온 드니 빌뇌브 감독의 2017년 작품. 외계에서 날아온 비행물체 속 외계인의 언어를 해독하려는 언어학자 루이스 뱅크스(에이미 아담스)와 물리학자 이안 도넬리(제레미 레너)의 노력을 통해 소통을 이어가는 그리고 운명적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을 그려 호평 받았다.

살을 빼는 것 보다 찌는 것이 더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살 안쪄 걱정되는 분~
나이가 들면서 살이 조금 찌고 배도 약간 나오는 것이 웬지 안정감있고 품위있어 보인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거나 마르는 사람도 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체력이 떨어지고 주위가 산만하여 성적이 쳐지고 특히 편식으로 인한 영양이 고르지 못하거나 성장이 빈약하다고 호소하는 부모님은 아이에게 고른 영양섭취와 함께 '살찌오'를 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살찌오'는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에서 얻을 수 없는 성분과 꼭 필요한 성분들로 흡수가 잘 되어 빠르게 작용한다.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살이 찌지 않거나 허약하고 매사 쉽게 지치는 등 기초체력이 없는 사람들과 이유없이 마르는 사람들은 '살찌오'를 꼭 한번 드실 것을 권한다.
▶ 유전적 특이성이 전체를 좌우하지는 못한다
잘 먹어도 체중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의 작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등의 가계를 살펴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통 체중에 속하는지 마른 체형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 부모가 많이 먹어도 살이 안찌는 체형이라면 자녀에 속하는 사람도 유전적인 특이성에 의해 마른 체형일 수 있으나 유전적인 특이성은 후천적인 식습관 및 생활 습관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
▶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는 가장 큰 내부요인
신경이 예민해서 살이 안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텐데 정서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분의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공급이 된다고 하여도 충분히 섭취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살이 찌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잘못된 식습관이 마르게 한다
나는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개 식습관이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영양소만 과도하게 먹거나 부족하게 먹게되어 적절한 체중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채식 위주의 저칼로리 식사만 하는 경우라면 체중 증가는 당연히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육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때 아마 편식하지 말라,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모든 영양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이 건강한 체중 유지의 지름길이다.
허약하거나 체격이 빈약하면 밖에서 자신이 없는 법! 당당한 체격이 부러우십니까? 흡수가 빠른 체중증가에 「살찌오」 체중늘고 힘도 솟아!
salzzio
무료상담전화 : 1644-2464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
입금계좌: 농협 356-1272-3414-43 김선정 썬모아
서울사당지사: 02-522-2710
특허 제10-1314762호

SAFA 대한민국 전문업체 비디오 라디오 음악 노래방 녹음
휴대용 충전식 동영상과 노래방을 내손 안에!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SAFA
▶ 충전식 휴대용 SAFA 7인치 화면 액정 장착
▶ 언제 어디서나 노래방 음원 재생 (마이크만 연결하면 그 곳이 바로 노래방)
▶ 언제 어디서나 HD급 비디오, 영화, 동영상 감상
▶ 라디오 기능으로 재난시에도 라디오 청취
▶ 녹음기능, USB 메모리 사용기능
▶ 등산, 낚시, 여행갈 때 야외 필수품
2018년 최신제품
• 제품명: 디지털 충전식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 충전전압: 220V/ AC 5V 1A
• 입력: 마이크로 SD카드/ USB메모리스틱 8~32GB
• 판매원: 사파(SAFA)/ 제이에스넷
• A/S기간: 구입후 1년
이미자, 남진에서 박현빈, 장윤정까지 1100곡 수록!
노래방 음원 별매! 도전1100곡 7080 노래방 SD카드
전국노래방 55곡 음원 선착순 무료증정! 추억의 팝송 1,000곡 별매!
행사기간중 50분 한정 마이크, AC충전기, USB 스틱 증정
정품
장보통신기기 인증 MSIP REI AFA PMP-50
마이크로 SD카드
USB 메모리
DC 5V
스탠드
★ 이런 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택배로 받으신 분들중 3일이 경과하신 분 / 제품보호용 필림을 제거하신 분
선물용으로 최고!
서울사당지사: 02-522-2710
무료체험 오시는 길 : 2호선 서울대 입구역 8번출구 원당초교 뒤편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
무료상담전화 : 1661-1224 입금계좌: 농협 356-1272-3414-43 김선정 썬모아

소리를 크게 증폭하여 들려드립니다
최첨단 음성증폭기 오늘 大할인 행사
"저잡음 회로 설계로 잡음이 적으며 안전하고 간편합니다"
전문기업에서 생산한 음성증폭기 大할인 행사
2018년 최신제품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EARPASS Q80
필요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선물!!
무선형으로 뛰어난 착용감, 초소, 초경량 음성증폭기
건전지가 필요없는 충전식(고속충전, 장기간 사용)
간편한 작동, 급속 충전방식으로 손쉽게사용
10단계 음향조절기능
이럴 때 사용하세요
▶ 가족, 친구와의 대화시 큰소리가 필요할 때
▶ TV시청시, 방송음을 좀더 크게 듣고 싶다.
▶ 직장에서 상사의 부름을 크게 듣고 싶다.
▶ 상담시 상대방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다.
▶ 강사가 멀리 있어도 강의를 크게 듣고 싶다.
▶ 두손으로 작업하면서 좀더 크게 듣고 싶다.
▶ 종교행사시 좀더 크게 듣고 싶다.
1회 충전시 24시간 연속사용!
배터리 잔량 확인기능 내장
하울링 방지기능 내장
3000
KC인증제품
★ 이런 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체험 후 구입하신분/ 택배로 받으신 분들중 3일이 경과하신 분 제품보호용 필림을 제거하신 분
무료체험 오시는 길 : 2호선 서울대 입구역 8번출구 원당초교 뒤편
무료상담전화 : 1644-2464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
서울사당지사: 02-522-2710
입금계좌: 농협 356-1272-3414-43 김선정 썬모아